

簡易 崔岬의 사행시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한성금*

<차 례>

1. 서언
2. 역사적 현장과 자아인식
 - 1) 사적지를 통한 정체성 확인
 - 2) 사행 과정에서의 자괴감
3. 대명인식과 응전방식
 - 1) 명 의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 인재 양성의 응전방식
4. 결어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대명외교에서 활약한 간이 최립의 대명관의 변화양상을 연구목적으로 했다. 최립은 외교문서의 能文者로서 네 번이나 명나라 사행에 참여하였다. 정축, 신사년의 사행은 임란 전으로 宗系辨誣에 비중을 둔 사행이었고 계사, 갑오년의 사행은 임란 중에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고 전황을 알리기 위해 다녀왔다. 따라서 난세시대를 대처해 나가는 명·청 교체기 지식인의 대명관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네 번의 사행 속에 드러난 최립의 의식세계를 보면 먼저 역사적 현장에서 유가적 인물의 존숭과 자아인식이다. 그는 철저한 유교이념을 통해서 조선의 신하로서 자존의식을 갖고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사적지의 사행시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적지의 인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삶이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사적지에서는 기존 이념을 재무장하는 정신적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조선의 유학자로서의 의식의 재충전 공간이었다.

* 조선대학교

다음으로 사행 과정에서의 자괴감이다. 중대하고 위급한 시기에 명에 도착하여 느끼는 감회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충격보다는 임무수행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네 권의 사행록 안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자존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명에 대한 인식변화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구원국, 문물이 화려하고 풍성한 천자의 나라라는 추송에서 명의 존망을 위협하는 호적에 대해 무기력한 명나라를 보게 되고,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현실적 태도를 보인다.

결국 최립의 응전방식은 태평시대에 미리 준비해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治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치자가 덕치로써 다스릴 때 저절로 나라는 안정을 찾게 된다는 인재중심의 시각을 드러냈다.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유비무환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명나라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의식의 각성이 보인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임진왜란의 역사적 난세에 대처해나가는 16세기 말, 지식인의 대명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명·청 교체기 한 사람의 조선 지식인의 대명관에 대한 인식 전개와 변모를 통하여, 조선 관료들의 대중국관의 통시적 고찰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핵심어 : 능문자, 자괴감, 정체성, 자존의식, 대명관, 유비무환

1. 서언

簡易 崔崱(1539, 중종 34~1612, 광해군 4)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이름난 문장가이면서 시인이었다. 그는 조선중기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能文者로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네 번이나 명나라 사행을 다녀왔다. 정축년, 신사년의 사행은 임란 전으로 宗系辨誣에 비중을 둔 사행이었

고 계사년, 갑오년의 사행은 임란 중에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고 전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의 중국의 정세는 북방 민족이 쇠약해진 명을 위협하던 때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환기에 대명외교에서 활약한 최립의 사행시를 고찰함으로써 명·청 교체기 지식인의 대명관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간이 최립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온 편인데 시보다는 주로 한문산문 쪽에서 이루어졌다. 한문산문에서는 최립 산문 전반에 대한 성격 규명과 산문 분석을 통하여 의식세계를 밝히고¹⁾ 유형별로 산문을 분석하여 산문의식과 주제의식 등을 연구하였다.²⁾ 특히 고문에서는 조선중기의 고문론 연구를 통해 文道合一의 관점에서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 문장학의 실용적 의의를 부각시켰으며³⁾ 조선후기의 고문론 연구에서는 고문을 설명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과정에서 다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⁴⁾

시 부분의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최립의 생애와 시문을 고찰하여 그의 문학관을 배경론, 문학론, 특징론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⁵⁾ 특히 사행시 분석을 통해 임진왜란 전후의 사행시의 특성과 의식, 동행과의 교류를 통한 문학적 자각 등을 표현하였다.⁶⁾ 최근에는 그림에 대한 최립의 서화평을 구명하여 최립의 예술적 안목을 보여주는 다양한 논문 등도 있지만 주로 한문 산문 쪽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문 쪽에 연구가 많은 것은 그가 선조조의 八文章家⁷⁾의 한 사람으로 문장에 있어서는 당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기에 연구자들의 관

1) 이성민, 「崔嵬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5쪽.

2) 김우정, 『최립산문의 예술경계』, 한국학술정보(주), 2006, 13~26쪽.

3) 朴英鎬, 「朝鮮中期 古文論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36~52쪽.

4) 鄭 珉, 『朝鮮後期 古文論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38~39쪽.

5) 吳尙姬, 「簡易 崔嵬의 文學論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쪽.

6) 金賢漢, 「簡易 崔嵬의 使行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3쪽.

7) 조선 선조조의 팔문장은 崔嵬, 李山海, 李純仁, 宋翼弼, 白光勳, 尹卓然, 河應臨, 崔慶昌이다. 그 가운데 최립은 문장에 조예를 보여 月象谿澤의 漢文四大家와 비견되기도 하였으며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여 문명을 날렸다.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307쪽 참조.

심을 받은 것 같다. 비록 그의 시가 산문에 가리어 빛을 보지 못했지만 당대 시인들은 최립의 시는 근엄하고도 기발하며 건장하다고 했는데, 奇健한 것으로 평가받아 시어의 精切함과 기상의 矯健함에 힘쓰는 등 시의 精鍊에 치중하였다고 평가받았다.⁸⁾

최립의 사행시를 보면, 명나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새 문물에 대한 이국 체험의 흥분보다 사행임무 수행 중에 느낀 굴욕감과 수치심, 사행상황에서의 괴리가 많은 작품에 드러난다. 최립은 네 번의 사행⁹⁾으로 사행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명의 정세에 대해 그 현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명에 대한 실상을 깨닫게 되었고 조선의 사신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사행시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대청 사행록과 대일 사행록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¹⁰⁾ 그 자료들을 통해 조선 후기 대중국관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비하여 대명 사행시는 자료가 훨씬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립의 대명 사행시에 대한 고구를 통하여 조선 중기 사신의 명에 대한 외교적 태도 및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의식의 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명·청 교체기, 한 사람의 조선 지식인의 대명관에 대한 인식 전개와 변모를 고찰함으로써 조선 관료들의 대중국관의

8) 민병수, 위의 책, 307쪽 참조.

9) 최립은 4번의 명나라 사행을 통하여 4개의 詩錄을 남겼으며 이 시들은 182제 253편으로 약 819제 되는 최립 시에서 4분의 1 분량을 차지한다. 「丁丑行錄」(1577. 2~6)의 사행목적은 謝恩使와 宗系辨誣이다. 시제는 23제이고 직책은 質正官이다. 시의 주된 창수자는 書狀官 金誠一과 정사 尹斗壽이다. 「辛巳行錄」(1581. 5~11월)의 사행 목적은 宗계변무와 주청사이고 시제는 53제이다. 직책은 질정관으로 시의 주된 창수자는 정사 金繼輝와 서장관 高敬命이다. 「癸巳行錄」(1593. 11. 8~1594. 3. 1)의 사행 목적은 청병과 진주사이고, 시제는 33제로 직책은 주청사이다. 시의 창수자는 한 호이다. 「甲午行錄」(1594. 8. 20~1595. 3. 27)의 사행 목적은 청병과 주청사이다. 시제는 73제이고 직책은 주청부사이다. 시의 주된 창수자는 정사 尹根壽와 서장관 申欽이다. 김현미, 「간이 최립의 사행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2~17쪽.

10) 조선 사신이 원·명·청에 간 횡수는 579회로 그것을 시대별로 살펴본다면 원대(1271~1368)에 1회, 명대(1368~1636)에 82회, 청대(1637~1912)에 497회이다. 임기중, 『한국 고전 문학과 세계인식』, 역락, 2003, 489쪽.

통시적 고찰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2. 역사적 현장과 자아인식

1) 사적지를 통한 정체성 확인

최립이 살았던 16세기는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추종하는 시기였고 최립 역시 철저한 유교적 관념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사행시 곳곳에서 유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주로 역사적 현장인 사적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립의 사적지에 대한 관심은 주변의 경물보다는 철저하게 그 인물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신들의 사행 노정에서 사적지 방문은 필수적이다. 주로 정규 노정에 들어 있는 사적지를 방문하지만 사행 노선에 없더라도 사신들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신이 가보고 싶은 곳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 둘러보기도 한다.¹¹⁾ 따라서 사신들은 기존의 기록과 서적을 통한 막연한 지식에서 현장과의 확인으로 또 다른 감동을 표출하곤 했다.

최립은 의무려산, 만리장성, 영평 청절사(이제묘), 어양교 등과 같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곳의 인물과 관련된 시를 표현한 것이 많다. 사행의 노정 중 지나게 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타 시인들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역사적 인물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사적지의 인물과 그 이념을 확인하고, 그곳에서의 인물들을 통해 성리학적 사관을 곳곳에서 드러내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유교이념을 통해서 조선의 신하로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책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사적, 지명을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감격하고 사적의 현장에서 똬으로써 자아를 재무장 하는 것이다.

11) 중국의 조정을 상대로 외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행의 임무였고 정해진 이외의 노정을 밟아보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또 다른 목적이자 욕망이었다.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3, 287쪽.

吾學久迷方	나의 학문 오래도록 길을 잃고 헤매다가
末路差回頭	말로엔 약간 머리를 돌렸네.
每聞前輩風	선배들의 풍도(風度)를 들을 때마다
思之爲綢繆	사모하는 생각이 간절히 얽혀 들었네.
黃卷當對面	써 놓은 글만 펼쳐 봐도 얼굴을 마주한 듯한데
矧伊棲遲丘	은거(隱居)한 곳을 지난다면 더 말해 무엇하랴.
所以望茲山	이 산을 바라보는 까닭은
先生如何求	선생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네.
行役阻幽討	하지만 갈 길 바빠 직접 답사도 못하는 몸
夕陽雲物愁	석양엔 경물만 근심을 안기네.
借問鄉黨子	향당 자제들에게 묻노라
公學今誰修	공의 학문을 지금 누가 닦는지를.
庶幾一者見	한 사람이라도 보기를 바랄 뿐이니
敢望平生游	감히 바라노니 평생의 벗으로 지내련만.
嗚呼非公故	슬프다 공 때문이 아니라면
胡爲此夷猶	어찌 이곳에서 머뭇거리리오. ¹²⁾

〈次韻望醫巫閭山 一〉¹³⁾

최립은 의무려산을 소재로 7수¹⁴⁾의 작품을 썼는데, 賀欽에 대한 흠모의 정을 장편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사행시 중에서 한 곳을 배경으로 쓴 시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얼마나 하흠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시에서는 명나라 정통 성리학자인 하흠을 생각하며 지은 시로 하흠은 자신의 호를 의무려산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릴 적에 이 산에 입산하여 독서했던 사람인데, 철저한 성리학적 사관을 지닌 인물이다. 최립은 하흠을 흠모하기 때문에 이 산을 지나면서 그에 대한 경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2) 한시 번역은 『국역 간이집』을 인용하거나 참조했음을 밝힘.

13) 崔 岵,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

14)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에 3수(〈次韻望醫巫閭山〉 2수, 〈次韻有懷賀先生〉 1수)와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에 4수(〈盤山望醫巫閭山〉 1수, 〈次百拙望醫巫閭山次懷賀先生韻〉 3수)가 전한다.

의무려산은 기암괴석과 각종 나무, 동굴 등이 어울려 계절마다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옛날부터 불교와 도교의 수행자들이 수신 양성하던 곳이어서 선계 이미지를 내포하기도 했다. 따라서 역대의 사행이 의무려산에서 얻은 것은 자연의 조화에 대한 감동과 의식의 전환 혹은 자각이었다.¹⁵⁾ 그러나 최립의 시는 주변 경물 묘사보다는 하흠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책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흠모했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그의 학문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흠을 존송하는 것은 그가 주자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었기 때문이다. 하흠은 <次百拙望醫巫閭山次懷賀先生韻>의 3구에서 “원래 공부하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함이니”¹⁶⁾라고 표현한 것처럼 수신에 힘써서 전형적인 유교적 이념을 잘 실천한 사람이다. 또한 이 시 2수의 11~14구에서는 주희와 육상산의 차이점을 드러냈으며¹⁷⁾ 육상산의 학문에 대하여 쟁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명이 왕양명과 육상산의 학문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리학을 따른다는 주체성 있는 시각이다.

최립이 살았던 16세기의 우리나라는 양명학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주자학이 정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1574년(선조 7) 허봉의 『조천기』에 보면 왕양명이 문묘에 종사되고 그 후손이 작위를 이어받은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논쟁하면서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바로잡으려 한다.¹⁸⁾ 이러한 성리학의 존송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

15) 조규익, 앞의 책, 311쪽.

16) 自有工夫存實踐.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次百拙望醫巫閭山次懷賀先生韻一>)

17) 象山學近禪 辨爭殊不休 此雖廓大路 彼惑傳中州.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 <次韻望醫巫閭山 二>)

18) 1574년(선조 7) 허봉의 사행기록인 『조천기』에 보면 허봉은 자신의 사행목적 외에도 조정 문묘에 왕양명이 종사됨을 알고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자학과 왕양명의 학문을 비교하여 왕양명의 학문이 옳지 않다는 논쟁을 한다. 허봉, 「조천기」, 『국역 연행록 선집』 권1, 민족문화추진회, 1976, 424~427쪽 참조.

대의 독보적 사상이었다.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추종하고 있던 최립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백이숙제를 소재로 쓴 시¹⁹⁾에서는 충절과 절의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峻節古風死亦生	절조와 풍도 드높아라 죽어도 살아 계시니
支撐宇宙一亭亭	오늘도 홀로 우뚝 서서 우주를 떠받치고 있네.
當時但識三綱重	당시엔 단지 삼강 중한 줄만 알았는데
此子非須萬世名	이 분께서는 만세토록 이름 남기기 위함은 아니네.
自後紛紛幾聖暴	그 뒤로도 성군과 폭군이 얼마나 분분히 일어나서
從他屑屑較權經	정도와 권도 구질구질 각축을 벌였던고.
首陽山下灑下上	난하의 위쪽이요 수양산 아래의 묘
廟貌森嚴勅額明	황제가 내린 편액 위엄이 짓누르네.

〈永平清節祠次韻〉²⁰⁾

고죽성을 중심으로 한 夷齊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의리에 대한 존승과 경모, 행동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뉜다. 많은 사행록의 필자들은 이곳에서 백이숙제의 충절과 의리를 표출하였는데, 수양산은 조선왕조 지배이념으로서의 충절을 상징한 이념의 장소이다.

위의 시에서 최립이 백이숙제를 크게 생각한 이유는 1구의 절조와 풍도, 3구의 삼강의 유교적 덕목을 고수한 점이다. 특히 명성을 위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단지 삼강의 중요성과 그 실천 때문에 지조를 지킨 것을 높이 사고 있다. 같은 소재로 사행시를 남긴, 1589년(선조 22)에 聖節使로서 명에 갔던 尹根壽의 작품 〈弔夷齊廟 二首〉 중 하나를 보면 “수양버들 언덕을 한가히 거닐고/ 푸른 바닷가에서 마음 상하네/ 외로운 충성으로 말 잡아 막던 날은/ 굳은 절개로 고비 캐던 봄이었네/ 백대의 강상 중하니/ 천년의 사당 새롭네/ 평생 옛날 조상

19) 「丁丑行錄」에 1수, 「辛巳行錄」에 1수, 「甲午行錄」에 2수가 전해진다.

20) 崔 昱,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

하며 눈물 흘렸는데/ 공연히 다시 한 번 수건 적시네”²¹⁾라고 읊었는데 이 시 역시 4구에서 이념화된 절개를 표현하고 있지만 최립의 시와 비교해 볼 때 격양된 감정보다는 부드럽고 잔잔하게 읊고 있다. 최립의 시에서는 강한 어조로 인물묘사를 직서하고 있는데 3구와 4구에서 명예욕보다는 유교적 이념으로 실천적 삶을 살았던 두 사람에 대해 시의 미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그들 삶의 행위를 찬양하는 내용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최립의 의식세계이다. 유교적인 기본 덕목인 삼강을 중시하는 백이숙제는 그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이고 그 자신의 내면에도 백이숙제와 같은 동일한 의식으로 자아를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적지는 기존 이념 고수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하흠에게서는 은거하여 주자학적 학문을 깊이 연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백이숙제에게서는 명예욕보다 유교적 덕목의 원칙을 중히 여기고 그 원칙을 고수하는 실천력을 경모하였다. 이것은 <夷齊廟次韻>에서도 묘사되었는데, 2구의 “천추토록 사모할 의리 높은 사당에 붙였네”²²⁾라고 했으며 또 <永平次台韻夷齊廟 2수>에서도 3구의 “고죽이야 원래부터 군자의 절조를 북돋은 걸”²³⁾이라 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리와 절조를 지녔던 백이숙제를 흠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명나라에 와서 사적의 인물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고 그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 자아의식으로 확인해 본 것이다. 夷齊廟 고사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최립이 살았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대체적으로 주자학적 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후대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夷齊의 고사에 대하여 세계의 변화를 모르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했다.²⁴⁾

21) 散策垂楊岸 傷心碧海濱 孤忠叩馬日 苦節採薇春 百代綱常重 千年廟宇新 平生弔古淚

空復一沾巾. (尹根壽, 『月汀先生集』, 「朝天錄」, <弔夷齊廟> 二)

22) 千秋慕義寄高祠.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夷齊廟次韻>)

23) 孤竹元培君子節.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永平次台韻夷齊廟 二>)

24) 배주연, 「명·청 교체기 조선 문사 이안눌의 明 使行詩 연구-朝天錄(1601)과 朝天

최립은 신분이 매우 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천인 출신으로 李後白을 배종하고 나서 면역되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장원을 하였다고 한다.²⁵⁾ 이와 같은 불우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能文者로서 임란을 전후한 시기에 외교 문서의 제작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²⁶⁾ 그렇지만 그의 낮은 문벌은 최립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오직 뛰어난 문장 실력과 군주에 대한 충성이었다. 유달리 최립이 시 소재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사적이었고 그곳에서 풍광을 심미적 정서로 읊기보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충성스런 자아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것은 <漁陽橋次韻>²⁷⁾에서도 드러난다. “역사 속의 영웅호걸 그리워 멀리서 찾았나니/ 그렇지 않다면야 만 리 길을 왜 왔으리/ 공동산은 바로 광성자가 머물던 곳/ 현원이 도를 듣고 성태를 길렀다지” 어양교는 현원 즉 황제가 재위 19년 만에 공동산의 석실에서 도를 닦고 있는 광성자라는 仙人을 찾아가 도를 묻고 수도 끝에 至道의 정수를 얻었다는 고사를 갖고 있는 사적지이다. 또한 唐 현종 때 안록산이 어양에서 20만 대군으로 반란을 일으킨 곳이다. 최립은 이 역사적 사실에서 참된 인재를 그리워한다는 것에 두는데, 사행길에 역사 속의 어진 선인을 생각하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만 리 길을 왔다는 표현에 잘 드러난다. 7구와 9구²⁸⁾의 풍후와 역목의 인재가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안록산의 난과 같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고 그 자신 역시 난세에 어진 인재를 그리워하고 있

後錄(1631)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06, 91쪽.

25) 최립은 門地가 낮았다. 李瀼의 『星湖僿說』을 安鼎福이 정리한 『星湖僿說類選』, 卷九·下에 의하면 최립은 ‘천인’ 출신이었는데 李後白을 陪從하고 나서 免役되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장원을 하였다고 한다. 허균은 『國朝詩刪』을 편찬하면서 같은 시대의 살아 있는 인물로는 최립과 이달의 시만을 수록하였다. 심경호, 「간이집 해제」, 『국역 간이집』1, 민족문화추진회, 1996, 2쪽.

26) 최립, 위의 책 20쪽.

27) 弔古壯遊懷賢才 不然萬里胡爲來 空同山卽廣成處 帝軒轅聞道胚胎.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28) 非復風后力牧業/漁陽不救聲如雷.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다.

이상에서 사신들이 사행 도중 지나치는 역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읊었던 곳이지만 최립의 사행시에서는 철저하게 인물에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유교적 이념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경모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²⁹⁾ 즉, 사적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유교적 이념으로 재충전하고 그 자리에 자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지에서의 사행시에는 최립의 대명관의 분열이 보이지 않는다. 후대의 홍대용은 청을 긍정했고 18세기의 박지원은 당대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존명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 최립의 사적을 읊은 시에서는 기존 관념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 사행 과정에서의 자괴감

최립은 정치적 혼란기에 중요 사명을 띠고 사행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임무를 잘 수행하여 조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이국 경물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중국의 조정을 상대로 외교적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그의 대명의식은 대부분 임무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신의 직분으로 중국에까지 와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무력한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시에서 나라의 비상시에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신들이 갖춰야 할 재능 중의 중요한 하나가 시문 제작이다. 이 중에

29) 최립은 성리학적 규범 사유에 충실한 글을 주로 썼으며 우의적이거나 해학적인 글을 그다지 남기지 않았다. 최립은 『율곡문집발』에서 “문장이란 도의 여사요, 시는 또 문장의 여사”라고 단언하였다. 이 견해는 일반적인 道本文末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최립은 1554년(명종 9) 15세 때 이이와 처음 만난 이래로 평생에 걸쳐 교유하였고 영향을 받은 것은 문학적 성취가 아니라 도학적 성취에 있었다. 김우정, 『최립산문의 예술경계』, 한국학술정보, 2006, 44~45쪽.

문의 작성은 뛰어난 문사들이 담당하여 사신들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공적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신들은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우선은 사행지에 가야하며, 그곳에서 다시 외교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리들을 만나야 하고, 나아가 황제를 알현하여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³⁰⁾

최립의 시를 보면 임란 이전에는 종계변무에 대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임란 이후에는 청병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사행 과정에 있어서의 최립의 자괴감은 임란 중에 썼던 사행시에서 훨씬 강도 높은 낙담으로 표출되었다. <次韻夜吟>의 5구에 보면 ‘나라의 치욕 잊지 못해 애태우는 단심이요’³¹⁾라고 읊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부탁해야 하는 사행 임무를 자존심 상한, 나라의 치욕으로 생각했다. 임란 전의 「정축행록」과 「신사행록」에서는 종계변무의 해결을 위한 고민이 언급되어 있다. 즉,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을 증찬할 때 조선측의 주장을 수록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였는데, 이 일로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아직도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의 등본을 입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행 과정에 있어서 심적인 고통도 많은 작품에 자괴감으로 드러나 있다.

다음의 시에서 명에 대한 최립의 의식이 드러난다.

皇恩久已釋冤氛	원한을 풀어 주겠다는 황은이 예전에 내렸지만
使事猶羞未盡分	사신의 직분 아직도 다하지 못해 부끄럽네.
橐裏無金甘露宿	돈도 다 떨어졌으니 노숙을 달갑게 여길 수밖에
腰間有劍動星文	허리에 찬 칼빛만이 밤하늘 별자리 비추네.
京圻漸向山河美	경사로 점점 향하는 길 산과 물도 아름답고
道路多穿市肆喧	도로도 이젠 꽤나 많이 번잡한 저자로 뚫려 있네.
受命同存兄弟義	사명을 함께 받은 우리 형제의 의리가 있지 않소
明朝入洛似機雲	내일 아침 낙양에 들면 기운처럼 보이리라.

<三河疊韻>³²⁾

30) 嚴慶欽, 「韓國 使行詩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92쪽.

31) 國恥丹心歌.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32) 崔 昱,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위의 시에서는 사행 목적인 중계변무의 일을 묘사하고 있다. 1구와 2구는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을 증찬할 때 했던 약속인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표현이다. 비록 사신의 생활은 어렵지만, 5구와 6구에서는 황제가 계시는 京師로 향하는 길은 산과 물도 아름답고 도로도 많이 발전된 모습이라고 명에 대해 긍정적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명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은 경사에 도착해서 절정을 이룬다.

<到京>에서는 “감탄을 자아내는 웅장한 성지의 그 규모요/ 멀리서도 압도하는 높다란 전궐의 기상이라/ 줄지은 상점은 때로 나뉘어 재화를 가득 쌓아 놓고/ 관아가 산재한 大路에는 고급 수레가 치달리네/ 우리 동방에도 봉래와 방장이 있소마는 / 중국은 천상의 땅인 줄을 일찍 알고 있었지요”³³⁾라고 읊고 있다. 최립은 사행현장의 새로운 것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주로 사행 중에 경험한 느낌을 시적 소재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사에 대한 칭송은 황제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행시에서 드러나는 경사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웅장함과 화려함, 태평성대 등의 긍정적 시어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辭朝>에도 잘 드러난다.

四海天清一日輪	사해의 하늘 맑아 하나의 해 등글고
容光地盡向陽人	태양을 향하는 사람이면 빠짐없이 비취 주네.
來朝却又辭朝去	조회하러 왔다가 또다시 문득 떠나는 길
莫怪遲遲出禁闈	황성(皇城) 문 나서려니 자꾸만 머뭇거리지네.

<辭朝>³⁴⁾

이 시 역시 1구와 2구의 ‘一日輪’이나 ‘向陽人’ 등의 표현으로 명에 대한 지극한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드러낸 의도적 표현이다. 4구에서는 황

33) 規模竊歎城池壯 氣象遙瞻殿闕尊 列肆隄分居異貨 通衢衙散走高軒 蓬萊方丈雖吾土 早識中州上界存.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34) 崔昱,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제가 계시는 황성문을 떠나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리진다는 표현으로 평소 최립이 명에서 느낀 굴욕감이나 수치심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사행문학에 표현된 세계관이었으며 외교적 관계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일종의 외교적 처세였다.

경사에 대한 관념적인 선입견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황제가 계시는 곳에 와서 사행임무를 이룰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작용했다. 그러나 그 임무는 최립의 사행기간 내내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괴롭힌다. 결국 다음의 시를 보면 약속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光分八座尊嚴地 태양빛을 나눠 받은 존엄한 팔좌의 자리 위에
血瀝三書痛切言 세 통의 피토하는 글 통절한 말씀을 올렸는데.
未許淹留竣使事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머물러 있게는 안 했어도
千金一諾亦知恩 천금과 같은 언약 또한 은혜인 줄을 알겠네.

〈辭堂〉³⁵⁾

우리나라 사신들은 중계변무의 사실이 『대명회전』에 명기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신증본의 완간 때까지 머무르지 못하고 귀환하게 된다. 사신 임무를 맡을 때는 이 일이 마무리 짓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기가 늦춰져서 결국 『대명회전』의 내용을 수정해서 새로운 내용을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이러한 책임의식에 대한 자책감은 임진왜란 중에 청병을 목적으로 온 사행시에 더욱 두드러진다.

임란 중에 썼던 「계사행록」과 「갑오행록」에는 대부분의 시가 사행목적인 청병을 소재로 썼다. 「계사행록」에서는 〈旣下亭上使金知事子昂送酒壘韻〉, 〈漫賦〉, 〈書事〉, 〈統軍亭感懷〉, 〈鴨綠江〉, 〈留別分戶曹閔參判而吉2수〉, 〈玉河館和李白愁陽春賦次韻〉, 〈龍岡次東軒韻錄奉洪承旨君瑞行史 2수〉, 〈感事〉 등에 임무에 대한 절박함과 완수하지 못한 자책감이 드러난다.³⁶⁾ 「계사행록」의 33제 가운데 10수가 임무수행을 해결하지 못한 심경

35) 崔 崐,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36) 이러한 의식은 허균의 사행시에서도 드러나는데, 명나라로 가면서 고국을 근심하

표출에 대한 언급이고 「갑오행록」에서도 10여 편의 시에서 자괴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더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更長睡短補寒曦	긴 겨울밤 잠도 짧아 부족한 낮 시간 보충하며
一鎖常仍十二時	오늘도 관소에 갇힌 채로 하루를 보냈네.
食爲冥間支過少	밥 한 끼 겨우 먹고 밤 시간 어떻게 견뎌낼까
薪從月裏斫來遲	달빛 속에 패는 장작 언제나 추운 방 데울거나.
危邦久自慚偷活	위급한 나라에 죽치고 앉아 한 목숨 사는 게 부끄러워
遠役端宜勉忍飢	먼 길 떠나왔고 보면 배고픔 정도는 참아야지.
還是相如悶消渴	하지만 상여의 소갈증을 어찌 그냥 놔두리오
尙須茶酒潤吟脾	쪼르륵거리는 뱃속에 술 한잔 할까 보다.

〈無聊中戲爲 一〉37)

위의 시는 관소에 갇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초라한 자신에 대해 비참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하루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 춥고 배가 고프지만 조선의 신하로, 임진왜란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갑오행록」 안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상황묘사이다. 위의 시 두 번째 수에서도 보이는데, 3구의 “가소로워라 자격도 없이 억지로 청한 사행길/ 가련하도다 오래도록 하는 일 없이 날 보내니”³⁸⁾라고 했고 「계사행록」의 〈既下亭上使金知事子昂送酒疊韻〉에서도 “나는야 축무처럼 무능한 노인인 걸/ 포서처럼 구원병 얻을 희망이 있으리오”³⁹⁾라고 하면서 중국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보듯이 몇 번의 사행길에 자신의 포부를 펴지 못하고 명나라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본인의 무력에 괴로워하는

는 이중의 지향이 보인다.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방도가 명나라의 도움을 더 얻는 데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싸우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엇갈린다. 김태준 외 6명 공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119쪽.

37) 崔 昱,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38) 長征可笑非人強 久滯如憐度日遲. (崔 昱,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39) 自知燭武無能老 安望包胥乞得師. (崔 昱, 『簡易集』, 卷六, 「癸巳行錄」)

것이다.

경사에서의 행적에는 비교적 명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辛巳行錄」에서는 여타 행록과 달리 경사에서 경험한 일들을 소재로 <到京>, <到館>, <見朝>, <受賞>, <受宴>, <觀國學>, <觀天壇>, <辭朝>, <辭堂>, <見堂> 등의 10여 편의 시들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은 경사에서의 행적은 보통 사행의 실질적 내용 보고를 목적으로 한 연행록류에는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써 공인으로서의 작시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사에서의 화려한 시어선택과는 달리 몇 편의 시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가 사행 과정에 있어서 자괴감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책무에 대해 초조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관은 명은 존송해야 할 나라,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줄 나라라는 대중화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최립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주었다.

3. 대명인식과 응전방식

1) 명 의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립의 사행시를 보면 명은 성리학적 존송의 나라, 제왕의 고을,⁴⁰⁾ 천상의 땅⁴¹⁾으로 인지하고 문물과 화려한 경사에 대한 찬탄⁴²⁾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것은 경사에 진입해서 묘사된 시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명청 교체기 당시 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침체가 극심하던 때이며 만력제는 거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있던 시기로 태평시대와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⁴³⁾ 최립은 명나라에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40) 知是帝王鄉 (崔 岵,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山海關次韻>)

41) 早識中州上界存 (崔 岵,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到京>)

42) 規模竊歎城地壯 氣象遙瞻殿闕尊 列肆隧分居異貨 通衢衙散走高軒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到京>)

러한 호의적인 표현은 약간의 작위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줄 천자의 나라로 인식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른 선행 사신들의 기록에서 이미 인지했던 것으로 의례적인 기록이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와보니 막강한 명나라 또한 정세가 어지럽다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최립의 사행시에 보면 호적에 대해 표출한 시가 많다. 당시 여진족은 명의 북부 지역인 요동지역의 성지를 자주 공격하고 관원들을 살육하였다. 최립의 사행시에서 호적에 대한 언급은 임란 전과 임란 중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임란 전에 간간히 보이던 호적에 대한 묘사가 임란 중에는 강도가 높고 심각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결과 풍문으로 들었을 때와는 호적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호적의 출몰에 대한 시는 「신사행록」에서는 <沙嶺次韻>, <次韻李摠兵>, <次韻楊忠壯照>, <紅羅山次韻>, <廣寧次韻> 등에 표현되어 있다. 「갑오행록」에서는 <行聞廣寧董摠兵大捷 高平>, <高平>, <沙嶺道中疊韻> 등에 보인다.

북방민족인 호적의 출병은 이제까지 지냈던 최립의 대명관에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의식의 각성을 갖게 했다. 이것은 명의 화려함과 웅장함, 명에 대한 믿음 등의 기존 관념에서 명의 존망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그것과 더불어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유비무환의 현실 인식적 태도가 드러난다.

만주 지역은 명나라의 변방으로 자주 호적이 침입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따라서 호적에 대한 시적 표출은 임란 전의 「정축행록」에서는 사적지 <장성>에서만 언급하였을 뿐 나타나지 않고, 「신사행록」에서는 요동을 지나면서 호적의 존재를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의 참상을 아직 겪지 않았고 천자국 명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이다.

43) 李君善,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회, 2010, 44~45쪽.

只是吾行不落圍	나의 발길 변경을 채 벗어나지도 못한 터에
邊書踵後疾如飛	변방의 급보가 날아오듯 뒤쫓아 이르렀네.
誰專一面空提旅	한 방면 맡은 지휘관이 어찌 팔짱만 낄 것이며
豈惜千鈞重發機	강궁을 당겨 활 쏘는 일 그 누가 아끼리오.
未必山河因以失	그러니 산하를 잃는다고 어찌 꼭 말하랴만
應將子女係而歸	자녀들 데리고 피난길을 떠나는 것도 좋으리라.
傳聞二十萬達虜	전해 듣기로는 이십만 오랑캐 군사들이
皆解彎强皆策肥	모두 활을 쏘 줄 알고 살진 말 타고 있다 하네.

〈次韻得邊報〉⁴⁴⁾

위의 시는 「신사행록」에서 보이는 몇 편의 오랑캐에 대한 언급 중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요동 땅을 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변방에서의 소문이 불안과 두려움을 준다. 3구와 4구에서 호적이 온다고 해도 지휘관이 팔짱만 끼고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적을 향해 활 쏘는 일을 누가 아끼겠느냐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5구와 6구에서는 꼭 산하를 잃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을 통해 호적의 횡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7구와 8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소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굉장히 뛰어난 20만의 오랑캐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신사행록」의 앞부분에서도 보이는데, 〈次韻李摠兵〉의 7구와 8구⁴⁵⁾에 “길손이 어떻게 믿으리요 자꾸만 모래 먼지 일며/ 요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변방 백성의 이야기를”라고 적고 있으며 〈次韻送成敬甫〉 6구⁴⁶⁾에서도 “믿을 수 없는 변방 소문 놀랄 것이 또 있겠오”라고 하면서 호적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고 있지만 불안해한다. 그렇지만 〈廣寧次韻〉의 1구에서 4구⁴⁷⁾까지 보면

44) 崔 岘,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45) 遠人未信邊氓語 頻見塵沙動惡氛. (崔 岘,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次韻李摠兵〉)

46) 邊聲多妄豈相驚. (崔 岘,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次韻送成敬甫〉)

47) 將軍元制外 御史亦監邊 神力遙尊岱 兵威實殿燕. (崔 岘,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廣寧次韻〉)

“장군은 원래 바깥 다스렸고/ 어사 또한 변방 감찰했네/ 신력이 멀리 태산을 높였고/ 병사 위력이 실로 연을 진정할 만했네”와 같이 곧 명이 오랑캐를 평정할 것이라는 신뢰를 드러내 보인다. 또한 <次韻李摠兵>의 5구와 6구⁴⁸⁾에서도 “북쪽 변방 정벌하면 오랑캐 무서워 겁내리니/ 동쪽 염려하는 천자의 마음 거뜰히 풀어 주시리라”고 했으며 오랑캐 정벌의 강력한 믿음을 보인다.

그러나 명나라의 흥망에 위협이 되는 호적의 침입을 읊은 시는 더욱 늘어나고 천자가 계시는 천하의 지배자 명이 호적에 시달리는 나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소문으로 호적의 위협을 감지하다가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기까지 호적에 대해서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다음의 시에 잘 표출되고 있다.

將軍新逐單于地	장군이 이제 막 흉노의 선우를 쫓아낸 곳
客子胡爲忽忽過	나그네가 어떻게 훌쩍 지날 수 있겠는가.
城下伏屍填雪塹	성 아래 었어진 시체들은 눈 덮인 해자를 꽉 채우고
草間流血入冰河	풀 사이로 흐르는 피는 언 강에 스며들어 가네.
罷民正怕兵連始	이제 또 전란이 시작되나 겁에 질린 백성이요
壯士徒誇戰獲多	전과(戰果)를 많이 세웠다고 으스대는 장사로세.
回首還堪說鄉國	머리 돌려 조국의 일을 어찌 말하라
洛江三載未清波	삼 년 동안 낙강 물을 맑게 하지 못했으니.

<高平>⁴⁹⁾

「갑오행록」에서는 호적의 침입에 관하여 읊은 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쓴 시이기 때문에 실상이 훨씬 더 참담하다. 따라서 임란 전의 「신사행록」에서 보이던 풍문으로 듣던 호적의 실체보다는 처참한 참상을 심각하게

48) 榆地北開應懾虜 楓宸東顧庶寬君. (崔 昱,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次韻李摠兵>)

49) 崔 昱,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표현하고 있다. 즉, 「신사행록」에서는 소문으로 들리던 오랑캐의 존재를 무시하려 하고 또 명나라가 잘 처리할 거란 믿음이 보였다. 이러한 명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져 「신사행록」처럼 호적의 존재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실추된 명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임란 중의 사행시인 「계사행록」과 「갑오행록」에서의 호적에 대한 표출은 천심에 의지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계사행록」에서는 ‘天’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는데, <留別分戶曹閔參判而吉 2수>의 “위급한 사정 하늘이 알아 아무렴 붙들어 주실 텐데”⁵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雨後安州道中…>에서는 “재앙 내린 하늘 역시 후회하는 듯도 하니”⁵¹⁾라며 모든 인간사를 하늘에 맡기고 있다. 또한 <龍岡次東軒韻錄奉洪承旨君瑞行史 2수>에서 “어찌 이런 물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겠소만/ 천심이 끊이지 않았으니 사람 일 잘해야 하리이다”⁵²⁾ 이러한 ‘天’에 대한 믿음은 「갑오행록」, <小凌河道中 1수>의 7구와 8구⁵³⁾에서 “고평에서 승첩을 거두고 부임하신 우리 장군/ 형세를 파악했으니 어찌 그대로 놔두리오.”라고 약한 믿음으로 이어오다가 결국 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山海關次台韻 1수>에서 5구와 6구를 보면 “정녕코 귀신이 있어 남몰래 도와준 그 덕으로/ 지금까지 중화의 땅이 아무 탈 없다고 해야겠지”⁵⁴⁾라고 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천하를 지배했던 명이 변방의 호적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나약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50) 扶危會有天公在. (崔 昱, 『簡易集』, 卷六, 「癸巳行錄, <留別分戶曹閔參判而吉 二>)

51) 天心正兆悔. (崔 昱, 『簡易集』, 卷六, 「癸巳行錄, <雨後安州道中 得遠接使柳公德純在嘉山寄來韻 次和>)

52) 物力何資戡國難 天心未絕責人修. (崔 昱, 『簡易集』, 卷六, 「癸巳行錄, <龍岡次東軒韻錄奉洪承旨君瑞行史 二>)

53) 將軍赴自高平捷 勢合商量豈不才. (崔 昱,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小凌河道中 一>)

54) 定有鬼神陰贊是 須令華夏壯如今. (崔 昱, 『簡易集』, 卷七, 「甲午行錄, <山海關次台韻 一>)

明 의존에서 天 의존으로 바뀌는 의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2) 인재 양성의 응전방식

최립의 응전방식은 태평시대에 미리 준비해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 나가야 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물 중심의 인재양성을 주장한다. 즉, 治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치자는 바로 덕치로써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치자가 덕치로서 다스릴 때 저절로 나라는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秦焚詩書防聖智	진 나라가 시서를 불태워 학문을 통제하였지만
馬上氣吞天下地	말 위에서 기세 떨쳐 천하를 집어삼켰네.
秦銷鋒鏑防戰爭	진 나라가 무기를 녹여 전쟁을 방지하였지만
鉏耰棘矜還爲兵	호미와 곡괭이가 도로 무기로 변했다네.
長城之防北胡熄	하지만 장성만은 북호를 잠잠케 하였으니
秦計有失亦有得	진 나라 계획 중에 잘 된 것도 있다 할까.
殊不知向無宮中胡	궁중의 호가 없게 할 줄은 어찌하여 몰랐을꼬
胡亦未必非秦虞	그 호가 또한 진 나라 우환이 안 되었다고 못하리라.
漢女相續嫁單于	한 나라 여인들 잇따라서 선우에게 시집갈 때
此時長城如始成	그 무렵쯤 장성 역시 비로소 이루어졌네.
君不聞有道守在夷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오랑캐 막는 별도의 도를
次不聞有將賢於城	또 듣지 못했는가 성보단 장수가 낫다는 걸.

<長城 一>55)

위의 시는 최립의 「정축행록」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데 長城을 지나면서 읊은 시이다. 그런데 장성을 소재로 쓴 다른 시인들의 사행시 작품과 인식이 다르다. 같은 소재인 梅溪 曹偉의 「燕行錄」에 수록된 <長城古堞>이란 시의 7구와 8구⁵⁶⁾에서는 이곳에 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은 것은 진시황의 공이 아니라 주위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진시황의

55) 崔嵬,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

56) 萬古金湯天設險 鴻功留與後人誇 (曹偉, 『燕行錄』, <長城古堞>)

공적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무리한 토목공사를 시킨 포악한 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립의 위의 시 5구와 6구를 보면 진나라 계책 중에 잘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北胡를 잠잠케 한 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뒷사람들 대부분이 진시황의 장성축적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비해 최립은 오랑캐를 막기 위한 진시황의 행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장성의 효용성에 관심을 둔 최립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리장성에 대한 타 사행시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최립의 열린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상상했던 관념 속의 진시황과 만리장성의 현장에서 직접 본 장성의 위용은 분명 느낌이 달랐을 것이며 이것은 장성의 효용적 측면을 고려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시 11구에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를 막기보다는 仁義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펼쳐서 오랑캐를 귀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읊고 있다. 또한 12구를 보면 적의 방어를 위한 것이 물리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쌓는 것보다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유비무환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의 시에서도 治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理大州心撫小兒	큰 고을을 다스리며 백성을 어루만져 주니
兵荒父子免相離	병화 속에도 부자가 서로 이별을 면하였네.
防閑但設誰能盜	울타리 비록 허름해도 누가 도적질 감히 하랴
約束誠懸可以師	약속을 걸어 놓았으니 사표가 될 수 있고말고.
牒訴如雲多益辨	처리할 문서 운집해도 오히려 다다익선
襟懷盡日寂無爲	가슴속은 종일토록 고요히 무위에 잠기시리.
一言靜勝嘗全晉	정승의 편액 걸어 놓고 전진을 맡기도 했다마는
欺道雖同効獨遲	그 도는 같다 해도 나홀로 공이 뒤지네.

<再奉府尹 此偶效歌頌 毋以諛視 亦有助發意思之道云>57)

57) 崔 昱, 『簡易集』, 卷六, 「癸巳行錄」.

위의 시에도 백성을 사랑과 덕으로 다스리는 治者 덕분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 이별을 면하게 되었고 도적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4구에서 백성들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는 약속을 걸어놓은 치자는 바로 사표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약속은 均水約束의 준말로 백성들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한 나라 召信臣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조치한 다음에 이를 비석에 새겨 세움으로써 분쟁을 막았던 고사가 전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治者는 바로 德治로 백성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오랑캐를 방어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은 바로 덕치임을 표현했는데, <紅羅山次韻>의 “사방 오랑캐 막는 도리 그 누가 말했던가/ 이것 말고 흉노를 평정할 계책이 또 있을까”⁵⁸⁾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의 오랑캐 막는 도리는 바로 덕치를 말한다. 이러한 유비무환을 강조하는 시는 <東林古城 次韻>에서도 드러나는데 13구와 15구, 16구에 “다행히 지금 태평이 오래되어/ 백성들이 성을 수축할 줄 알지 못하여/ 밭 갈고 나무하는 자 숲가에 그득하네”⁵⁹⁾라고 읊고 있다. 이것은 태평세대의 편안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18~19구에 “치세에 난세의 조짐 미리 살피리니/ 예방할 계책 세워 임금님에게 올리시면”이라고 태평성대에도 난세를 생각하라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계책은 덕치로 난세를 대비하라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립은 현 상황의 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백성을 잘 다스리느냐 여부이다. 어진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여 난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명의 사행지에서 느낀 의식세계의 한 단면이다.

즉, 최립의 의식 변모는 현실적으로 바뀐다. 우선 사적지에서 장성의 위용을 보고 진시황의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을 혹사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호적을 막기 위한 진시황의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

58) 守在四夷誰是道 否恐無策平匈奴. (崔嵬, 『簡易集』, 卷六, 「辛巳行錄」)

59) 民不知修城 耕樵遍林麓. (崔嵬, 『簡易集』, 卷六, 「丁丑行錄」)

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상상과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장성과 중국 변방에서 호적의 침입을 목도하고 현장에서 본 장성은 효용적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치세에 난세를 대비하자는 유비무환의 의식을 강조하는데 최립이 말한 유비무환이란 물리적인 준비보다는 인재의 필요성에 역점을 둔다. 인재양성은 궁극적으로 덕치로 다스릴 수 있는 治者를 길러내는 것이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보았다.

4. 결어

본고에서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최립의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명의 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의 중국 정세는 북방 민족이 강성해져 쇠약한 명나라를 위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역사적 변환기에 대명외교에서 활약한 최립의 사행시를 고찰함으로써 명·청 교체기 지식인의 대명관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립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能文者로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네 번이나 명나라에 다녀왔다. 정축년, 신사년의 사행은 임진왜란 전으로 종계변무에 비중을 둔 사행이었고 계사년, 갑오년의 사행은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고 전황을 알리기 위해 다녀왔다. 이러한 네 번의 사행 속에 드러난 의식세계를 보면 먼저 역사적 현장에서의 자아인식이다. 그는 철저한 유교이념을 통해서 조선의 신하로서 자존의식을 갖고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사적지의 사행시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행의 노정 중 지나게 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타 시인들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적지의 인물들이 유교적 덕목을 고수한 점 때문이다. 사적지 방문에서는 명에 대한 추숭으로 유교적 이념

을 확인하고 역사 속의 인물과 그 이념을 되새기는 관념적 태도로서 조선의 유학자라는 자아정체성을 재무장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명에 도착하여 느끼는 감회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충격보다는 사행 과정에 있어서 수치심과 자괴감이 네 권의 사행록 안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최립은 정치적 혼란기에 중요 사명을 띠고 사행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임무를 잘 수행하여 조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이국 경물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중국의 조정을 상대로 외교적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의 대명의식은 대부분 임무수행에서의 초조함과 무력함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립의 사행시를 보면 명은 성리학적 존숭의 나라, 제왕의 고을, 천상의 땅으로 인지하고 문물과 화려한 경사에 대한 찬탄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것은 경사에 진입해서 묘사된 시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최립은 명 나라에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호의적인 표현은 약간의 작위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줄 천자의 나라로 인식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와보니 명나라 또한 호적의 잦은 침범으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천자의 나라로 인식했던 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호적의 침략을 받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무력한 명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명이라는 나라보다는 天에 의지하는 표현으로 의식의 전환을 드러내는 현실적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나라의 비상시에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유비무환으로 治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德治로 다스릴 때 환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인재 중심의 시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명에 대한 불신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기존의 대명관이 분열되어 새롭게 재인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최 립, 『簡易集』.

許 筠, 「조천기」, 『국역연행록선집』권1, 민족문화추진회, 1976, 424~427쪽.

尹根壽, 「朝天錄」, 『月汀先生集』.

曹 偉, 『燕行錄』.

김우정, 『최립산문의 예술경계』, 한국학술정보, 2006, 13~26쪽, 44~45쪽.

김태준 외 6인 공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119쪽.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307쪽.

임기중, 『한국 고전 문학과 세계인식』, 역락, 2003, 489쪽.

鄭 珉, 『朝鮮後期 古文論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38~39쪽.

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287쪽, 311쪽.

김현미, 「간이 최립의 사행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17쪽.

朴英鎬, 「朝鮮中期 古文論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36~52쪽.

배주연, 「명 청 교체기의 조선 문사 이안눌의 明 使行詩 연구-「朝天錄」(1601) · 「朝天後錄」(1632)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06, 91쪽.

嚴慶欽, 「韓國 使行詩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92쪽.

吳尙姬, 「簡易 崔嵬의 文學論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쪽.

李君善,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2010, 44~45쪽.

이성민, 「崔嵬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5쪽.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A Perspective of the Ming Dynasty and Recognition of the Reality Shown in Envoy Poetry by Choi Lip

Han, Sung-geum

Ganee Choi Lip was a famous calligrapher and poet betwee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early 17th century. He was competent in writing diplomatic documents in the middle Joseon period and was sent to the Ming Dynasty four times as an envoy before and after the Imjinweran. The envoy's mission in the Jeongchuk and Sinsa Years before the Imjinweran focused on Jonggyebyonmu, and the envoy's mission in the Gyesa and Gapo Years was to ask for relief forces from the Ming Dynasty during the Imjinweran.

This study focused on how Chip Lip saw the real situation of the Ming Dynasty at the time he was an envoy.

Confucian ideology and self-awareness are always revealed in his envoy poetry. This was a common phenomenon with all the scholars living in the 16th century, but Choi Lip confirmed his identity as a Confucian scholar. His visits to historic sites showed his attitude. There he was rearmed as a Confucian scholar through showing esteem and respect to people with Confucian legitimacy.

Then, he had low self-esteem in performing his mission as an envoy. When he visited the Ming, he had sense of shame and his pride was low

rather than being shocked by the new culture and civilization, this kept flowing in his envoy record of four volumes.

He realized that the Ming were weak when he witnessed them being attacked by barbarians, escaping from the conventional thought that it was a country of an emperor with a splendid civilization which provided aid to Joseon. This led to mistrust of the Ming.

In conclusion, Choi Lip's method of response emphasized the spirit of 'saving up for a rainy day', considering the ruler's role as important. This shows a new recognition of reality and consciousness that a country can be stable when the ruler governs his country with virtue.

Key words : Jonggyebyonmu, real situation of the Ming, self-identity, low self-esteem in performing mission, method of response, awakening of consciousness